

P.E.T.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on Parental Awareness of Mothers

이 혜 란**

Lee, Hey Rhan

정 문 자***

Chung, Moon J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 E. T.) on (1) parental awareness and verbal control patterns of mothers and (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wareness and verbal control patterns of mothers. The subjects were 43 mothers whose children were in 3rd, 4th, 5th, and 6th grades in one of two elementary schools in the City of Seoul. Mothers who participated in a P. E. T. class were assigned either to an experimental or a control group. Mo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P. E. T. during the study; those in the control group received it after the study. Instruments were the Parental Awareness Interview (Newberger, 1980) and the revised Verbal Control Patterns (Gumperz, 1973) for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s and Pearson's correl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1) P. E. T. influenced parental awareness of mothers, and this change was maintained one month after completion of the P. E. T. class. (2) Mothers' verbal control patterns were changed by P. E. T. Specifically, mother's imperative and positional verbal control patterns decreased while personal verbal control patterns increased after P. E. T. (3) P. E. T. was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imperative and positional verbal control patterns but positively related to personal verbal control patterns.

* 본 논문은 1997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 동남보건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 론

최근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신념과 인지가 부모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Deković, Gerris & Janssens, 1991; Goodnow, 1988; Kohn, 1969; Newberger, 1980; Newberger & Cook, 1983; Sameroff & Feil, 1985). 부모는 아동양육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직하는 “생각하는 존재”이므로(Goodnow, 1988), 부모의 생각과 해석을 무시하는 것은 불완전한 관점에서 사회화 과정을 보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Sameroff와 Feil(1985), 그리고 Newberger(1980)는 인지 발달 이론에 기초해서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을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의 구조적 기초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양방향적인 관점을 중요시하여,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개념화된다고 보았다. 즉 부모가 아동을 개념화하는 방식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과 동시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동의 행동과 발달 특성 또한 부모가 아동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Deković et al., 1991).

특히 Newberger(1980)는 구조적 발달 이론 중 주로 Piaget(1968), Kohlberg(1969)와 Selman(1971)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parental awareness)에 관한 구조를 개발했다.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는 양육행동

과 유형에 대한 표면적인 관점보다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개념과 부모역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Deković & Gerris, 1992).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다는 것은 부모가 아동을 보다 깊이 이해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Newberger, 1980).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적 발달 접근은 무엇이 바람직한 양육신념이고 양육행동인지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부모-자녀 관계에 내재해 있는 과제와 갈등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부모의 인지적 자원의 복잡성과 융통성을 이해하려는 것이다(Newberger & Cook, 1983).

Newberger(1980)는 임상 면접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양육행동도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자녀를 확대하는 일부 부모는 자녀가 독자적인 욕구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자녀를 분리된 개인으로서 이해는 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인지가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있다(Deković & Gerris, 1992; Kohn, 1969; Luster, Rhoades, & Hass, 1989; McGillicuddy-De Lisi, 1985; Newberger & Cook, 1983; O'Brien, 1991).

또한 Newberger(1980) 그리고 Deković와 Gerris(1992)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측정함으로써 부모교육이나 임상적인 중재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들 교육이나 중재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의 변화가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유용한 기준

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양육행동에 기초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의 인식 수준은 높으나 행동은 낮은 수준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 Newberger(1980) 역시 부모역할에 대한 사고능력과 수행력은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Applegate와 그의 동료들(1985)은 개인의 대인간 인식과 행동 특히 의사소통간에 관계가 높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 수준에 부합되는 행동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런 것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 기법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교육의 경험은 부모역할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의사소통간의 관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볼 때,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측정을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중재를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장 널리 실시되고 있으며, 1996년 8월 현재 56,848명의 부모가 24시간의 정규훈련에 참여(Korea Effectiveness Training Inc., 1996)한,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P.E.T.)을 선정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P.E.T.가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Newberger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Newberger(1977)는 아동과 부모역할에 대한 부모의 사고와 아동양육 방식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Parental Awareness Interview:PAI)를 개발하여 연구하였다(Newberger, 1980, 재인용). 여기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Parental Awareness:PA)은 부모가 아동의 반응과 행동을 이해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끄는 방안을 공식화하는 조직화된 지식체계로 정의된다.

Newberger(1980)는 Selman과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연구를 토대로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였는데, 그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도덕적 발달의 기초가 되듯이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발달에 있어 기초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아동과 부모역할에 대한 부모의 개념이 인지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부모의 인지적 구조에 기초한 사고 패턴은 아동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인지-구조적 단계와 병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Newberger(1991)는 부모와 아동의 사회-인지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Kohlberg와 Selman의 이론에 기초를 둔 자신-타인 인식(self-other awareness)에 관한 3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가 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개념이고, 둘째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개념이며, 셋째가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이다.

Newberger(1980)는 부모와의 임상적인 경험 그리고 아동양육과 부모교육에 관한 문헌(Gordon, 1975; Group for the Advancement of Psychiatry, 1973; Morris, 1977)을 통해 이 3

가지 개념에 속하는 8가지 하위 요인을 이끌어 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인

(1) 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개념

- ① 발달에 대한 관점: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유전인가, 또는 환경인가, 아니면 이 둘간의 상호작용인가?
- ② 주관적 경험: 아동의 주관적 경험이 무엇이며 부모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③ 성격: 성격으로 설명되는 특성은 무엇인가? / 이상적인 아동이란 어떤 아동인가?

(2)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념

- ④ 의사소통과 신뢰: 친밀성, 상호성, 공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 ⑤ 갈등 해결: 부모와 아동, 아동과 아동간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가?

(3)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 ⑥ 훈육과 권위: 아동을 사회화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 ⑦ 욕구충족: 아동의 욕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 ⑧ 부모역할의 학습과 평가: 부모역할을 어떻게 배우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Newberger는 이들 하위 요인에 대한 부모의 사고를 파악하기 위해 각 요인별로 2개 이상의 질문을 사용하여 면접하였다. 질문은 직접적인 질문과 가설적인 딜레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Newberger(1980, 1991)는 8가지 하위 요인에 대해 반구조적인 면접을 사용해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1수준은 자기중심적 지향[egoistic(self) orientation]으로, 부모 자신의 경험과 욕구만이 고려되며, 자녀는 부모 자신의 경험의 투사로서 개념화된다. 그리고 부모의 욕구와 관계가 있는 아동의 행동이 부모 행위의 기초가 된다. 2수준은 인습적인 지향[conventional(norms) orientation]으로, 부모의 관점이 자기중심적 지향에서 인습적인 기준으로 변화된다. 자기중심적 관점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이 수준에서 부모의 추론은 전통이나 권위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규칙, 설명, 인습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아동양육 신념을 정당화한다. 자녀는 일반적인 아동들에 관한 유형화된 정의에 의해 이해된다.

3수준은 개별주의적(아동) 지향[individualistic(child) orientation]으로, 부모의 관점은 일반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부모-자녀관계가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상호적인 교환의 관계로서 개념화된다.

4수준은 과정(체계) 지향[process(systems) orientation]으로, 이 수준에서 부모는 앞의 3가지 수준의 관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나 이것들을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는 체계의 부분으로 본다. 즉 아동과 부모 모두 복잡하고 변화하는

심리적인 자기-체제로 간주된다. Newberger (1980)에 의하면 이들 사고의 4가지 수준들은 Piaget, Kohlberg 그리고 Selman의 발달이론처럼 발달적인 위계를 형성하며,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더 커지고 융통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Newberger(1980)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발달에 있어서, 실제로 두가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는 인지 구조의 발달(사고 능력)로서, 이것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으로 직접 측정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능력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적용하는 부모의 능력(수행력)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이는 어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은 부모의 개념을 측정하는 것일 뿐,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실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Brien(1991)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가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개인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하였다. 즉 부모역할 인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같은 신념을 표현하되 그 이유가 다른 두 명의 부모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어 두 명의 부모 모두 그들에게 복종하는 아동을 좋은 아동이라고 믿더라도,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PAI)을 사용해서 탐색질문을 하면, 1수준의 부모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 부모에게 복종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자녀가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부모를 나쁘게 본다”고 말하며, 반면 2수준의 부모는 “아동이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배우기 위해 권위적인 상을 존중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두 부모 모두 “좋은

아동은 부모에게 복종한다”라는 진술에 동의하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나, 두 부모가 추론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PAI)은 이러한 차이를 밝혀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 효과적인 부모역할훈련

효과적인 부모역할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P. E. T.)이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 즉 부모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의미한다. 임상 심리학자인 Thomas Gordon은 일부 심리 전문가에게만 통용되어 오던 인간관계에 관한 지식을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부모들이 생활함에 적용할수 있도록 P. E. T.를 개발하였다.

P. E. T. 과정은 총 8주에 걸쳐 진행되는데, 자격증을 가진 P. E. T. 강사들이 1주에 1회로 3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담당한다. 한 학급에 10-15명 정도의 부모들로 이루어진 부모 집단은 워크북과 ‘부모역할 배워지는 것인가’(P. E. T. in action)를 교재로 사용한다(김인자, 1992). 8주에 걸쳐 진행되는 P. E. T.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Gordon, 1970, 1976, 1989a, 1989b):(1) 문제의 소유의식 원리(the Problem Ownership Principle), (2) 반영적 경청(Active Listening), (3) 나-전달법 사용(I-Messages), (4) 환경을 변화시키기(Changing the Environment), (5) 무패방법(No-Lose Method for Resolving Conflicts), (6) 가치관 대립에 대처하는 기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강사의 강의를 통해 의사소통에 관한 여러가지 원리를 배우고 토론하며, 강사의 시범을 통해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배울 뿐아니라 훈련책자를 이용하여 실습하며 역할 연기를 통해

지도와 실습을 받는다. 참여자들은 교육받은 기술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용하여 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음 모임에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경청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김인자(1992)는 참여자들이 자녀양육의 기술 능력을 개발하는 정도는 부모 각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해 가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고 했다.

3. 부모교육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언어통제 유형과의 연관성

의사소통 연구에 있어서 구성주의자는 사회-인지적 발달과 언어적인 전략간에 상관이 있음을 강조했다. 구성주의자의 구조틀내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은 사회인지 쉼마의 발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대인간 구조”라고 했다(Delia et al., 197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들에게 주로 의사소통 기법과 원리를 훈련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부모가 지닌 대인간 구조의 한 측면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연결지어 탐색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의 구조체계가 발달할수록 타인에 대해 분화되고 추상적이고 통합된 인상을 형성하며, 그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를 잘 하도록하여 의사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고 했다(Trenholm, 1986). 여러 이론가들은 사회적 지각 과정, 특히 역할수용 또는 사회적 조망수용이 話者로 하여금 적응적이며 聽者에 민감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話者は 聽者의 의도, 태도 그리고 특성과 상황에 대한 관점을 추론할 수 있거나 내적으로 재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Applegate et al., 1985).

Delia와 그의 동료들(1979)은 인지적 복잡성과 대인간 상호작용의 내용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지적인 복잡성의 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참여자 중심적인 대화를 많이 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발달적으로 진전된 대인간의 구조체계는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관점을 취하거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聽者의 관점에 알맞는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부모-자녀 관계에 적용하면, 부모가 아동을 규제하거나 규제해야 할 상황에서 대인간 구조의 추상적인 체계를 지닌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을 양쪽측의 조망을 유도해내고, 타협하고, 협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며 이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는 대화를 하도록 이끈다(Applegate et al., 1985). 즉 부모의 사회-인지적 구조 수준이 부모의 의사소통 양식과 관계가 있다고 볼 때, 부모의 사회-인지적 구조의 한 측면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인지 구조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동기와 감정을 고려한 언어통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클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개인의 사회-인지적 구조와 의사소통 양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예: Clark & Delia, 1977; Johnson, 1977), 이에 대해 Applegate와 그의 동료들(1985)은 사회적 지각 능력이 개인중심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은 아님을 지적했다. 즉 인지와 행동사이의 연결이 직선적이거나 간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했다. 즉 충분히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각 능력을

개발시켜야 할 뿐 아니라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언어적, 그리고 전략적 수준에서도 의사소통적인 행동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한 행동적인 자원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각 능력이 개인-중심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나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변인 사이에는 단지 보통 정도의 상관만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고 실제로 몇몇의 연구에서 이들간의 관계 정도가 별로 강하지 않은 것($r=.24-.59$)으로 나타났다(Applegate et al., 1985; Burleson, 1983). 이것은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적절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만일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 부모의 인식과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간에 관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P. E. T.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습득한다면, 부모의 인식과 긍정적인 언어통제 유형간의 관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4.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가설 1:P. E. T.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1-1:P. E. T.로 인해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1-2:P. E. T.로 인해 향상된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일정 기간(1개월) 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1-3:P. E. T.로 인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은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가설 2:P. E. T.로 인해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 학생의 어머니 43명이었다. 피험자 표집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한 천주교회에서 공고를 통해 P. E. T. 교육을 원하는 어머니를 모집하였다. P. E. T. 교육시기를 1995년 11월과 1996년 1월로 정하였는데 총 43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 중 1995년 11월에 P. E. T.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28명을 2개의 실험집단에 배정하였고, 1996년 1월을 원하는 15명을 1개의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2. 연구 설계와 절차

연구를 위해 전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를 이용하였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실험처치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이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후후검사는 실험집단에게만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실시된 처치와 검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에게 실시된 처치와 검사의 내용

처치 및 검사내용		실험집단(n=25)	통제집단(n=14)
사전검사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PAI) 어머니의 언어 통제유형	있음	있음
처치	P. E. T.	있음	사후검사 후 제공
사후검사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PAI) 어머니의 언어 통제유형	있음	있음
추후검사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PAI)	있음	없음

3. 연구 도구

1)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

Newberger(1980)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PAI)은 부모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반구조화된 면접이다.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8가지 하위 요인들에 관해 일련의 정해진 질문을 하고 어머니의 인식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탐사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아동, 부모역할,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사고 유형에 대해서 면접을 한 결과가 4가지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표 2〉에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수준 요약표가 제시되어 있다.

면접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면접 내용은 테이프에 녹음된 다음 전사되었다. 어머니의 반응은 Newberger(1980, 1991)가 개발한 지침서를 이용하여 채점되는데,

지침서에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4가지 수준의 사고 특징이 정의되어 있고,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른 하위 요인별 반응 실패와 각 반응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지침이 상세히 적혀 있다.

Newberger(1980)는 그녀의 연구에서 기초로 한 Selman과 Jacquette(1977)의 채점 방식을 참고하였다. 각 하위 요인에 대해 1수준에서 4수준에 걸쳐 점수가 부여되는데, 반응이 특정 수준으로 정확히 평가되면 ‘순수’ 수준값(예, 1, 2, ...)을 갖게 되지만, 반응이 두 개의 수준 사이에 놓이게 되면 ‘혼합’수준값(예, 1(2), 2(3),...)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1수준보다는 분명히 높지만 2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1(2)가 되었다. 그리고 8개 하위요인에 대한 수준은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속적인 변인으로 다음과 같이 변형되었다(O'Brien, 1991).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점수	1	1(2)	2(1)	2	2(3)	3(2)	3	3(4)	4(3)	4
	3	4	5	6	7	8	9	10	11	12

그리고 8개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3가지 개념의 점수는 각각의 개념에 속해있는 요인 점

수의 평균을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표 2>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수준 요약표

하위요인	수 준			
	1.자기중심적인 지향	2.연습적인 지향	3.주관적- 개별주의적 지향	4.체계(과정)지향
I. 발달에 대한 관점	환경에 수동적 또는 무감각	경험을 여과 또는 처리	아동과 환경의 상호작용	상호작용하는 체계, 영향의 수준들
II. 주관적 경험	아동의 사고와 느낌에 부모경험을 투사	일반 아동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으로 이해	아동 개인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	내성적인 심리적 자기-체계
III. 성격	구체적, 물리적으로 묘사	일정한 유형의 정의적 특성으로 이해	안정된 정서적인 개별성	연속적인 과정에 있는 심리적인 자기-체계
IV. 의사소통과 신뢰	원하는 목적 성취	언어적인 교환과 역할 완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적, 정의적인 교환	자신과 타인의 발전 과정
V. 갈등해결	부모의 안락이 우선	공평성과 의무	의사소통과 타협	이해하기 위해 문제의 근원을 확인
VI. 훈육과 권위	도구적인 통제 또는 체념	가치를 주입하기 위해 의도 고려	개인적인 인식과 가치발달을 위해 원인을 파악	성장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한 융통적인 방법
VII. 욕구충족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 부모행동	정서적인 욕구가 아동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봄	아동을 통해 개별적 욕구를 알게 됨	근원적인 욕구와 보다 표면적인 욕구 구별
VIII. 부모역할의 학습과 평가	부모의 경험/부모의 노력과 아동 성과	외적인 지원/기준에의 일치	아동을 통해/관계와 아동발달의 특성	자기 인식 과정/관계속에서 부모와 아동의 성장

출처: Parental conceptions of the child and child rearing: A structural developmental analysis by Carolyn M. Newberger,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77.(Sawyer, 1985, pp. 27-28, 재인용).

(1) 아동에 대한 개념 = ('발달에 대한 관점' + '주관적 경험' + '성격')/3

(2)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개념 = ('의사소통과 신뢰' + '갈등해결')/2

(3)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 ('훈육과 권위' + '욕구충족' + '부모역할의 학습과 평가')/3

그러므로 3가지 개념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모두 3점~12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2명의 분석자가 10명의 사례에 대해 산출한 분석

자간 일치도는 .78~.90이었다.

2)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측정 도구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언어통제 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연미희(1994)의 연구에 사용된 Umstot(1979)의 질문지와, 현주(1979)와 문성희(1982)의 연구에서 사용된 Gumperz(1973)의 질문지를 기초로,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본 질문지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 상황들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전검사 항목과 사후검사 항목으로 각각 7개이다.

어머니의 응답은 Bernstein(1970) 이론의 3가지 형태-명령 지향형, 지위 지향형, 개인 지향형-로 구분된다. 명령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은 아동에게 부여된 역할 재량권이 거의 없고 주로 제한된 언어 형식에 의해서 표현되며 신체적 변화나 위협, 언어적 처벌등에 근거한 통제방식이다.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은 아동의 행동 통제시 주로 지위나 가족내의 규칙 또는 사회의 보편적 규칙에 근거한 통제 유형이다. 그리고 개인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은 아동의 행동 통제시 자신의 행동결과가 아동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아동 개인의 특성, 의도, 동기에 근거한 언어적 표현이 포함된다(Bernstein, 1970). 이들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준거는 Bernstein의 3가지 언어 통제 양식에 근거를 두고 분류한 Gumperz(1973)의해 22가지의 하위 요인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였다. 언어통제 유형별 준거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위의 준거에 기초해서 사전, 사후검사 각각 7 문항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해당되는 범주의

빈도를 계산하여 유형별로 점수화했다. 즉 어머니의 명령지향형, 지위지향형 그리고 개인 지향형 언어 통제 점수 범위는 각각 0점~7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간 일치도는 .92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가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되었다.

가설 1:P. E. T.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언어통제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paired *t*-test를 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경우, P. E. T.가 끝난 1개월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와 추후검사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paired *t*-test를 하였다.

가설 2:P. E. T.로 인해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간에 유의한 상관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 E. T. 참여 전과 참여 후,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에 Pearson의 상관계수(*r*)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표 3> 언어통제 유형별 준거

언어통제유형	세 부 적 근 거
명령지향형 (imperatives)	(1) 명령(commands):아동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외현적인 가능성만을 아동에게 제시한다.(예, 어서 빨리 가지 못해! 치우지 않고 뭘 해!) (2) 언어적인 벌(verbal punishment):아동의 행동에 대해 욕을 하거나 꾸짖는다.(예, 너는 정신이 있는 아이니? 나쁜 아이 같으니!) (3) 자극의 제거(removal):아동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자극을 제거하는 경우이다.(예, TV를 꺼버린다.)

	(4) 간접적인 벌(indirect punishment):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애정을 박탈 하겠다거나 아동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이다. (예, 너 자꾸 그러면 안 사줄거야.)
	(5) 신체적인 벌(physical punishment): 아동의 행동에 대해 매를 때리겠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매를 드는 경우이다.(예, 한번 더 그러면 매 맞는다.)
지위지향형 (statusoriented)	(6) 한정된 규칙을 강조하는 대화(limited-positional appeals): 특별한 시간, 장소,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한 경우이다.(예, 9시면 잘 시간이야. 밥 먹을 때는 조심해야지.)
	(7) 보편적 규칙을 강조하는 대화(universal-positional appeals): 어느 문화권 내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규칙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예,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야.)
	(8) 지위적 규칙을 강조하는 대화(status-positional appeals): 아동의 위치(연령, 성)에 중점을 두고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예, 어른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9) 부모배상(parent reparation):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대신하는 경우이다.
개인지향형 (person-oriented)	(10) 부모지향형 정의적 대화(parent-oriented affective appeals): 아동의 행동 결과가 부모에게 미치는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다.(예, 네가 자꾸 고집부리면 엄마는 정말 속상해.)
	(11) 아동지향적 정의적 대화(child-oriented affective appeals): 아동에게 미치는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예, 학교 안 가면 심심하고 친구들이 보고 싶을텐데.)
	(12) 타인지향적 정의적 대화(other-oriented affective appeals): 제삼자에게 미치는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다.(예, 물건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13) 특권부여(concession): 아동행동의 긍정적인 동기를 강화하는 경우이다.(예, 10분만 더 보고 자.)
	(14) 조건제시(bargains): 특별한 조건을 밝히는 경우이다.(예, 내일은 더 큰 것 사 줄게.)
	(15) 아동배상(child reparation): 아동의 행동규제를 위하여 아동의 행동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예, 네가 훔쳤으니 가서 용서를 빌고 와야지.)
	(16) 회피(avoidance): 아동의 문제행동을 문제거리로 보지 않거나 혹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이다.
	(17) 부모지향적 인지적 대화(parent-oriented cognitive appeals): 아동행동의 결과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부모의 입장이 고려되는 경우이다.(예, 아빠가 회사일이 바빠서 잊고 오셨나 보다.)
	(18) 아동지향적 인지적 대화(child-oriented cognitive appeals): 아동의 행동결과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경우이다.(예, 학교 안 가면 내일 진도 따라가기 힘들거야.)

- 개인지향형 (19) 타인지향적 인지적 대화(other-oriented cognitive appeals):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고려나 설명을 하는 경우이다.(예, 네가 꽃을 꺾으면 다른 사람은 못보지 않니?)
- (20) 부모지향적 인지·정의적 대화(parent-oriented affective appeals): 부모의 입장에 대한 고려와 정의적 측면이 복합된 경우이다.
- (21) 아동지향적 인지·정의적 대화(child-oriented affective appeals): 아동의 입장에 대한 고려와 정의적인 측면이 복합된 경우이다.
- (22) 타인지향적 인지·정의적 대화(other-oriented affective appeals):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고려와 정의적인 측면이 복합된 경우이다.

IV.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를 가설에 따라 제시하기 전에 본 연구의 대상인 43명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

P. E. T.를 받기 이전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측정된 결과, 어머니의 반응은 <표 4>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8개 하위 요인 중 '의사소통과 신뢰'와 '훈육과 권위' 요인은 1수준의 반응(48.8%~55.8%)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수준의 반응(23.3%~41.9%)이었다. 반면 나머지 6개 요인은 2수준의 반응이 가장 많았고(51.2%~69.8%), 그 다음 순서가 1수준(16.3%~37.2%) 또는 3수준(7.0%~20.9%)이며, 4수준(0%~4.7%)은 없거나 아주 적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신뢰'와 '훈육과 권위'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 인식 수준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반응 분포

(N=43)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반 응 수 준 빈 도 (%)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아동에 대한 개념	I. 발달에 대한 관점	13(30.2)	25(58.1)	5(11.6)	0(0)
	II. 주관적 경험	11(25.6)	24(55.8)	6(14.0)	2(4.7)
	III. 성격	7(16.3)	30(69.8)	6(14.0)	0(0)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개념	IV. 의사소통과 신뢰	24(55.8)	10(23.3)	8(18.6)	1(2.3)
	V. 갈등해결	9(20.9)	28(65.1)	6(14.0)	0(0)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VI. 훈육과 권위	21(48.8)	18(41.9)	3(7.0)	1(2.3)
	VII. 욕구 충족	16(37.2)	22(51.2)	4(9.3)	1(2.3)
	VIII. 부모역할의 학습과 평가	10(23.3)	24(55.8)	9(20.9)	0(0)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8개 하위 요인의 수준을 점수화 한 후 3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이들 개념간의 상호상관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가지 개념의 상호상관 (N=43)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1) 아동에 대한 개념	(2)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념	(3)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1) 아동에 대한 개념			
(2)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념	.50***		
(3)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57***	.55***	

*** $p < .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의 3가지 개념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가지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가지 개념과 인구론적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개념과 가정의 수입간에 그리고 어머니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념과 어머니의 교육수준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인식수준이 높았다.

<표 6>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인구론적 특성간의 관계 (N=43)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부모경험기간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수	수입
(1) 아동에 대한 개념	-.22	.17	.20	.47**
(2)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개념	-.07	.36*	.23	.20
(3)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09	.24	.09	.09

* $p < .05$ ** $p < .01$

2. P. E. T.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에 미치는 영향

1) P. E. T.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P. E. T.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

준을 높힐 것이라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 대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사전, 사후검사 점수를 짝을 지어 t 검증(paired t -test)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7〉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및 차 검증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집 단	사례수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평균의 차	t
(1)아동에 대한 개념	실험	25	5.92(1.20)	6.85(1.19)	.93	4.43***
	통제	14	5.83(1.80)	5.64(1.14)	-.19	-.31
(2)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개념	실험	25	5.38(1.65)	7.14(2.11)	1.76	4.76***
	통제	14	5.50(2.34)	5.57(2.05)	.07	.23
(3)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실험	25	5.39(1.48)	6.83(1.96)	1.44	4.18***
	통제	14	5.45(1.77)	5.60(1.82)	.14	.53

*** $p < .001$

〈표 7〉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가지 개념 모두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가지 개념 모두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에 P. E. T.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아동에 대한 개념’,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어머니의 인식 점수가 높아졌으며 통제집단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P. E. T.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힐 것이라는 가설 1-1은 긍정되었다.

2) P. E. T.로 인해 변화된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지속성

P. E. T.로 인해 향상된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일정 기간(1개월)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사후검사와 추후검사 점수를 짝을 지어 t 검증(paired t -test)한 결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사후·추후검사 점수의 평균 및 차 검증

(N=25)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사후검사 M(SD)	추후검사 M(SD)	평균의 차	t
(1)아동에 대한 개념	6.85(1.19)	6.86(1.20)	.01	.21
(2)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개념	7.14(2.12)	7.06(2.16)	-.08	-.30
(3)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6.83(1.96)	6.73(1.81)	-.10	-.29

〈표 8〉에 의하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가지 개념 모두 사후검사와 추후검사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그러므로 P.

E. T. 참여로 인해 높아진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1개월 후에도 유지된 것이므로 가설 1-2는 긍정되었다.

3) P. E. T.가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미치는 영향

P. E. T.로 인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은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짝을 지어 *t*검정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단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9>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모두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와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에 있어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개인지향적인 언어통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후검사에서 개인지향적인 언어통제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언어통제 유형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및 차 검증

언어통제유형	집 단	사례수	사전검사 M (SD)	사후검사 M (SD)	평균의 차	t
명령지향적	실 험	25	1.45(1.12)	.62(.86)	- .94	-3.83***
	통 제	14	1.54(1.83)	1.50(1.55)	- .04	- .14
지위지향적	실 험	25	1.92(2.06)	.90(1.26)	-1.02	-2.65*
	통 제	14	1.79(1.87)	2.31(2.18)	.52	1.33
개인지향적	실 험	25	2.60(2.06)	4.41(2.53)	1.81	4.25***
	통 제	14	3.01(1.82)	2.31(2.02)	- .70	-2.90**

p*<.05 *p*<.01 ****p*<.001

그러므로 P. E. T. 참여 집단의 어머니는 명령이나 신체적인 벌을 사용하는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와 규칙이나 지위를 강조하는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감소한 반면, 부모나 아동의 사고와 느낌을 반영하는 개인지향적인 언어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P. E. T.로 인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은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가설 1-3은 긍정되었다.

3. P. E. T.로 인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의 관계 변화

P. E. T.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

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각각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있어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의 관계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가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가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개념,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는

〈표 10〉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의 관계(r)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집단(n)	명령지향적		지위지향적		개인지향적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1)아동에 대한 개념	실험(25)	-.43*	-.51**	.01	-.47*	.06	.52**
	통계(14)	-.47	.17	.25	-.08	.10	-.05
(2)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개념	실험(25)	-.12	-.59**	-.03	-.60**	.16	.65***
	통계(14)	-.46	-.31	.22	.22	.04	.01
(3)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실험(25)	-.50*	-.41*	.01	-.49*	.26	.50*
	통계(14)	-.58*	-.58*	.23	.31	.28	.12

* $p < .05$ ** $p < .01$ *** $p < .001$

사전검사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가지 개념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후검사에서는 3가지 개념 모두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인지향적인 언어통제는 사전검사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가지 개념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후검사에서는 3가지 개념 모두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P. E. T. 참여 후에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개념 모두에 있어서 어머니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와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를 적게 사용하였고 개인지향적인 언어통제를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아동에 대한 개념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념과도 비교적 높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그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개념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없었다. 사후검사에서는 사전검사와 마찬가지로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 사전검사와 차이는 없었다.

이와같이 P. E. T.로 인해 어머니의 부모역할

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므로 가설 2는 긍정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 가설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PA)과 언어통제 유형에 미치는 P. E. T. 효과

(1) P. E. T.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P. E. T.로 인해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즉 P. E. T. 참여 후에 아동에 대한 개념,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어머니의 인식 점수가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3가지 개념에 속하는 8개의 하위 요인이 P. E. T.를 통해 어떻게 변했는지 추후분석한 결과, ‘발달에 대한 관점’, ‘성격’, ‘의사소통과 신뢰’, ‘갈등해결’, ‘훈육과 권위’ 그리고 ‘부모역할

의 학습과 평가' 요인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Steps Toward Effective, Enjoyable Parenting(STEEP)을 사용했던 O'Brien(1991)의 연구 결과와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O'Brien(1991)의 연구에서는 STEEP의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점수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따라 비교했을 때는 '발달에 대한 관점', '의사소통과 신뢰' 그리고 '부모역할의 학습과 평가' 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연구에서 부모에게 실시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면 P. E. T. 참여 후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아진 요인들을 중심으로, P. E. T. 경험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P. E. T. 참여 후, '발달에 대한 관점' 요인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점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아동의 발달이 유전이나 환경 요인 중 어느 한가지 영향의 결과라고 인식했던 어머니(1수준)가 P. E. T.를 통해 유전과 환경이 모두 작용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또는 2수준의 인식을 했던 어머니가 P. E. T.의 대화 기법 예를 들면 반영적 경청을 학습하고 아동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아동 개인의 요구나 느낌 등을 인정하게 되면서 동일한 환경 요인이라도 아동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3수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성격' 요인의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아진 어머니의 말을 인용해 보면, 전에는 아동의 문제점이나 외적인 행동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P. E. T.를 통해서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P.

E. T. 대화기법을 적용한 후 자녀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자녀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P. E. T.의 대화기법이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P. E. T.는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갖기 위한 대화기법을 훈련시키는 것이므로 '의사소통과 신뢰' 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예상된 결과로 보여진다. 더욱이 P. E. T.는 부모에게 대화기법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강조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신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듣기는 하나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와 대화한다는 것을 자녀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부모 자신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주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대화할 의사가 없는 자녀의 말을 듣기 위해 질문을 계속하는 것(1수준)으로 알고 있다. 이보다 좀 더 발전된 개념을 지닌 부모의 경우에도 대화란 단지 쌍방이 서로에게 자기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고 교환하는 것(2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P. E. T.에서 강조하는 대화란 서로간의 생각뿐 아니라 느낌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화기법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것은 '의사소통과 신뢰' 요인의 3수준 이상의 인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P. E. T. 참여로 인해 '의사소통과 신뢰' 요인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아졌음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갈등해결' 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머니 들은 일단 아동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의

강압이나 설득에 의해 부모가 요구하는대로 갈등이 해결되든가 또는 아동의 주장이 너무 강하여 부모가 속수무책으로 아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감으로써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고있다. 즉 갈등해결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힘의 대결을 벌여 힘이 강한 쪽의 요구대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P. E. T.는 대화기법 특히 무패방법과 가치관 대립에 대처하는 기술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쪽만의 요구가 수용되고 상대방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통하여 두사람의 요구가 동시에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해결 과정을 통하여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능력이 신장되고, 보다 좋은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만족과 함께 두사람의 관계 발전도 가져오게 된다고 P. E. T.는 강조하고 있다(Gordon, 1970, 1976). 이것은 '갈등해결' 요인에 대한 인식의 3수준 이상의 특성이므로 P. E. T.를 통하여 어머니가 '갈등해결'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P. E. T.를 통해 '훈육과 권위' 요인에 대한 인식의 점수가 높아졌는데, P. E. T.는 그동안 많은 부모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처벌이나 보상(1수준) 또는 설명과 훈계(2수준)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신에 P. E. T.에서는 아동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와 관련하여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감정을 부모가 반영해 줌으로써 자녀의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아동 스스로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반영적 정정과, 어머니가 문제를 지냈을 때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표현해서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행동 변화를 하도록 하는 나-전달법을 가르친다. 즉 P. E. T.의 기

본 개념은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강요나 지시없이 스스로 상대방을 배려하여 행동을 바꾸도록 한다는 것이다(Gordon, 1970, 1976). 이같은 개념은 '훈육과 권위' 요인에 대한 3수준 이상의 인식과 일치한다.

'부모역할의 학습과 평가' 요인은 부모역할을 배우는 방식과 좋은 부모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인식이다. 부모역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토대로 행동하거나 라디오, TV, 책 또는 이웃의 양육경험 등에서 아동양육 방식을 배운다고 했다. 물론 P. E. T.와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했다(1, 2수준).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 자신이 어릴 때, 그들 부모의 행동에 대하여 지니고 있던 생각이나 느낌이 현재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자녀는 그의 부모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입수한 양육에 대한 정보도 그 연령, 그 유형의 아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참고는 될지언정 아동 개개인에게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부모역할의 학습과 평가'요인의 3수준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역할이 정해진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 반응을 중요시하면서 아동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P. E. T. 역시 외적인 정보이고 일반 아동과 부모를 염두에 두고 제공되는 것이지만 P. E. T.는 부모-자녀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교육시킴으로써 부모가 자녀 개개인의 행동,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역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P. E. T. 참여 전의 어머니는, 능력있고 좋은 행동을 보

이는 자녀를 가졌거나(1수준), 부모의 입장에서 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2수준)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P. E. T.에서는 전 과정에 걸쳐서 좋은 부모란 자녀의 개인적인 기준과 가치를 존중하는 부모임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가치관 대립시에 해결 과정에서 크게 부각된다. 다시 말해서 P. E. T.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가치가 대립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부모 자신의 가치관 수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의 가치관이 부모의 가치관보다 더 올바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함을 주지시킨다(Gordon, 1970, 1976). 이러한 P. E. T.의 철학이 어머니로 하여금 기존의 좋은 부모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도록 자극한다.

이상과 같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8개 하위 요인중 6개 요인에 있어서 어머니의 인식 수준이 P. E. T.를 통해 향상된 반면 P. E. T. 참여 전과 후, '주관성'요인의 인식 점수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E. T. 참여 전, 어머니는 아동과 성인이 생각과 감정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인식(2수준)하고 있었을지라도 P. E. T. 참여 후, 아동의 개별적인 느낌을 공감해서 반영하는 능력(3수준)을 획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즉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이며 주관적인 이해보다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부모의 경험에 비추어 단정짓는 것(2수준)에 익숙하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전통적으로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을 가볍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간주해 왔다는 것도 어머니가 자녀의 주관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인식(3수준)을 발달시키는 데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측면은 P. E. T. 과정의 훈련 방법 중 하나인 역할

연기에서 어머니가 상대방의 느낌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P. E. T.가 끝난 후 어머니는 P. E. T.의 다른 과정보다 자녀의 느낌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욕구 충족' 요인에 대한 인식 점수도 P. E. T.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동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주로 부모 자신의 추측이나 아동의 외형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1, 2수준) 반해, P. E. T.에서는 자녀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을 때 반영적 경청을 통해 아동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내적 욕구를 아동뿐 아니라 부모도 이해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Gordon, 1976). 그럼에도 불구하고 P. E. T. 참여 후에 아동의 욕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어머니는 아동이 외면적인 요구(예: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 공부하지 않고 노는 것)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반영적 경청을 잘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실제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8개 하위 요인 중 어머니가 P. E. T. 내용을 접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깨달고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인식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P. E. T.에서 습득한 의사소통 기법을 자녀에게 적용한 후 그에 대한 자녀의 반응을 경험해야만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8주의 P. E. T. 기간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짧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인중 '주관성'과 '욕구 충족' 요인의 경우, 어머니가 P. E. T.를 통해 배운 기법 즉 반영적 경청을 자녀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적절한

반영적인 경청을 통해 알게 되는 자녀의 주관적 반응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함으로써 이케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반영적 경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이루어 진다면 아마도 어머니는 자녀가 자녀 나름대로의 생각과 느낌이 있으며 여러 가지 상반된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다른 하위 요인의 수준 향상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 본 조사에서 P. E. T. 참여 후 평균점수가 대체로 2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여기서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즉 '주관성'과 '육구충족'요인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3수준 이상이 되어 자녀의 개별적인 생각과 느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다른 하위요인에도 영향을 주어 3수준 이상으로 인식을 높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아동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비취볼 때 P. E. T.는 '주관성'과 '육구 충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각과 느낌을 부모가 많이 접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많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P. E. T.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화기법을 익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운 대화기법을 자녀에게 많이 적용하도록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P. E. T.로 인해 변화된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지속성

P. E. T.로 인해 향상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이 일정기간(1개월) 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즉 사후검사와 추후검사간에 점수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P. E. T. 참여 후에 높아진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P. E. T.가 종료된 지 1개월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번 향상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추후분석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더라도 추후검사의 점수를 사후검사와 비교했을 때 점수가 감소한 하위 요인도 있었으나 반대로 점수가 증가한 하위 요인('발달에 대한 관점', '성격', '갈등해결', '육구충족')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P. E. T.의 효과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보다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추후검사를 한다면 P. E. T.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 좀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P. E. T.가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미치는 영향

P. E. T.로 인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은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통제집단과는 달리 실험집단의 경우 P. E. T. 참여 후에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와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는 감소하고 개인지향적인 언어통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chultz & Nystul(1980), Therrien(1979), Umstot(1979) 그리고 Hetrick(1979)의 결과와 일치하며, 우리나라 연구로는 이영분(1983), 김진숙과 연미희(1991), 연미희(1993) 그리고 이혜란(199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P. E. T.에서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법을 가르쳐 줌은 물론 부모-자녀 관계에 장애가 되는 12가지 의사소통 걸림돌(예: 명령, 협박, 설교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P. E. T.

에서 언급하고 있는 12가지 의사소통 걸림돌은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나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와 거의 비슷한 의사소통 방식이어서, P. E. T.에서는 그러한 의사소통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해 주고 역할 연기를 통해 부모 자신이 직접 그 느낌을 체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P. E. T.를 통하여 부모가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나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의 사용을 자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언어통제 유형 조사가 관찰이 아닌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도 이와같이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와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가 적게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제상황에서 부모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습관적으로 사용해 온 것과는 달리 P. E. T. 참여를 통해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PA)과 언어통제 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P. E. T.의 영향

P. E. T.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우선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가지 개념과 언어통제 유형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 능력이 개인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의 필수 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Applegate와 그의 동료들(1985)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개인중심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기초가 되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능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인식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인식능력에 부합되는 의사소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에 합당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적인 자원이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P. E. T.의 대화기법이 그 행동적인 자원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을 때는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행동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P. E. T. 참여 전에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간에 유의한 상관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P. E. T.를 통하여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지식과 기법을 습득할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날 것임을 예상해 보았다.

실제적으로 실험집단의 경우 P. E. T. 참여 후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3가지 개념은 언어통제 유형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에 대한 개념,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념과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어머니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명령지향적인 그리고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개인지향적인 언어통제의 사용은 증가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검사에서 사전검사와 마찬가지로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과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 유형간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첫째는 어머니들이 P. E. T.를 통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화기법을 배워 바람직한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둘간의 관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어머니들이 그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에 부합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P.

E. T.를 받았다고 신청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이 천주교인이며 어머니의 연령 폭이 크지 않은 등 대상자간의 동질성이 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검사가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존하므로 이를 어머니의 실제 행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어렵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둘째, P. E. T.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측정을 사용함으로써 P. E. T.가 대화기법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사고변화도 유도해 내는지의 여부를 탐색한 점이다. 셋째, P. E. T.가 어머니의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의 관계를 높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측정 면접(PAI)에 있어서 Newberger의 평가 기준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P. E. T.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수준은 높아진다. 둘째, P. E. T.로 인해 향상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P. E. T.가 종료된지 1개월 후에도 유지된다. 셋째, P. E. T.로 인해 어머니의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와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는 감소한 반면 개인지향적인 언어통제는 증가한다. 넷째, P. E. T.는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언어통제 유형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즉 P. E. T.참여 후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명령지향적인 그리고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개인지향적인 언어통

제의 사용은 증가한다.

이러한 결론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P. E. T.를 비롯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외부로 표출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외에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평가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평가 기준을 추가하면 내적 및 외적 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P. E. T.등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과 언어통제 유형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면, 부모교육에서 권장하는 양육태도 및 대화기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Newberger의 발달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Newberger의 접근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경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수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진되며, 동시에 부모교육 후 부모가 당면하게 되는 제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모교육에 의해 변화되는 종속변인인 동시에 부모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작용한다면 효율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진행방법을 차별화할때 그 기준으로써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성희(1991).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신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연미희(1991). P. E. T.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화형태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 8, 271-283.
- 문성희(1982).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개념화 유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미희(1992). 유치원 어머니에 대한 P. E. 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0(1), 350-358.
- 이영분(1983). 어머니 교육을 통한 부모-자녀간의 갈등개선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1990). P. E. T.의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10, 99-116.
- 이혜란(1995). P. E. T.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2, 311-335.
- 이혜란(1996).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간행중*.
- 현 주(1979). 어머니의 대화형태와 아동의 역할 수행 능력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pplegate, J. L., Burke, J. A., Burleson, B. R., Delia, J. G., & Kline, S. L. (1985). Reflecting-enhancing parental communication.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143-176). New Jersey: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ernstein, B. A. (1970). Linguistic approach to socialization: With some references to educability. In F. Williams(Ed.), *Language and poerty*. Chicago:Markham Publishing Company.
- Deković, M., & Gerris, J. R. (1992). Parental reasoning complexity, social class, and child-rearing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 675-685.
- Deković, M., Gerris, J. R., & Janssens, J. M. (1991). Parental cognitions, parental behavior, and the child's understanding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Merrill-Palmer Quarterly*, 37(4), 523-541.
- Delia, J. G., Clarke, R. A., & Switzer, D. E. (1979). The content of informal conversations as 'functions of interactants' interpersonal cognitive complexity. *Communication Monographs*, 46, 274-541.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or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oodnow, J. J., & Collins, W. A. (1990).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ordon, T. (1970). *P. E. 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Academ-

- ic Press Inc.
- Gordon, T., & Judith, G. S. (1976). *P. E. T. in action*. New York:Wyden Books.
- Gumperz, J. C. (1973). Social control and socialization. Boston:Kagan Paul.
- Hetrick, E. W. (1979). Training parents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in facilitative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2(4), 70-72.
- Hofer, C. (1981). *Sex differences in parental awareness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social cognition:A structural-developmental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A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Rand & McNally.
- Kohn, M. L. (1969). *Class and conformity*. Homewood, IL:Dorsey.
- Luster, T., Rhoades, K., & Haas, B.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behavior:A test of the Koh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 139-147.
- McGilli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7-24)*. New Jersey: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Newberger, C. M. (1977). *Parental conceptions of children and childrearing:A structural-developmental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Newberger, C. M. (1980). The cognitive structure of parenthood:Designing descriptive measure. In W. Damon(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7, 45-67.
- Newberger, C. M. (1991). *Parental Awareness Scoring Manual*.
- Newberger, C. M., & Cook, S. J. (1983). Parental awareness and child abuse: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urban and rural sampl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512-524.
- O'Brien, M. A. (1991). *Parental awareness: An examination of the construct in a low-ses intervention sam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Partoll, S. (1980). *The correlates of parental awar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Piaget, J. (1968).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W. W. Norton & Co.
- Pita, D. B. (1986). *Identity, intimacy,and parents' agency and communion as predictors of parental genera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Sameroff, A. J., & Feil, L. A. (1985). Parental concepts of development.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7-24). New Jersey: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awyer, V. K. (1985). *The development of father's parental awareness:A correlation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Schultz, C., & Nystul, M. S. (1980). Mother-child interaction behavior as an outcome of theoretical models of parent group education.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6, 3-15.
- Selman, R. L. (1971). Taking another's perspective:Role-taking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2, 1721-1734.
- Selman, R. (1981).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Academic Press.
- Therrien, M. E. (1979). Evaluating empathy skill training for parents. *Social Work*, 24(5), 417-419.
- Umstot, M. E. (1976). *A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P. E. T.*.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ayton.